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최근 충청지역 고용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한승철)는 고용의 양적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최근 충청지역 고용 동향을 살펴보고 특징을 도출한 후 향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최근 충청지역 고용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1부.

문의처 :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이재진

Tel : 043-220-0594 Fax : 043-220-0596 E-mail : chungbuk@bok.or.kr

“한국은행 충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 지역본부 > 충북본부)
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 붙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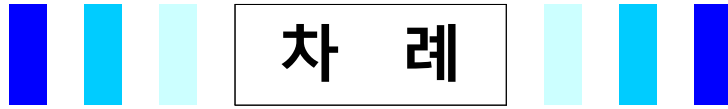
최근 충북지역 고용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2024.9

한국은행 충북본부

<작성자> 기획조사팀 과장 이재진

<조언자> 기획조사팀 팀장 김광민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최근 충북지역 고용 동향의 특징 2

 1. 양호한 고용사정 지속 2

 2. 여성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5

 3. 고용 불안정성 확대 7

 4.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발생 10

III.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3

< 참고 문헌 >

〈요 약〉

- ① (검토배경) 충북지역 고용사정은 양적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나 면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적 지표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최근 충북지역 고용 동향을 살펴보고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② (특징1) 충북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양호한 고용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중 충북지역 취업자 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전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건설업은 제도적 요인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였다. 다만 5월 이후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 영향이 나타나면서 증가폭을 제한하였다.
 -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 ③ (특징2) 여성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 충북지역 여성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서비스 및 판매직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충북지역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향상된 신체 능력과 노동을 지속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령층의 근무 유인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한편 핵심연령층(30~59세)과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 ④ (특징3)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증가하며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 올해 중 충북지역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충북의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 이는 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단기 구인 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

- 충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올해 중 전국과 달리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가자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임금 근로 대신 불안정성이 높은 자영업을 선택한 데 일부 기인한다.

⑤ (특징4)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발생하며 인력수급 사정이 악화되었다.

- 충북지역은 노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충북지역 인력 부족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다만 이는 음식 서비스 및 기계 관련 직종의 구인난 심화에 주로 기인하며 2022년 중 인력부족률이 크게 증가했던 제조업 관련 직종(기계 제외)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구인난이 점차 완화되었다.

⑥ (종합평가) 최근 충북지역 고용사정은 ①취업자 수의 견고한 증가세가 지속되며 양적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②서비스직 중심의 고령층 여성, 단기 고용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며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③일부 업종에서는 노동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수급의 미스매칭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⑦ (시사점) ①지역내 노동 수요 확대 지속, ② 고용 안정성 제고, ③ 인력난 완화 등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먼저, 양호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도록 충북경제의 지속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 내 주력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2) 서비스산업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 안정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주 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 물류 서비스업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3)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해야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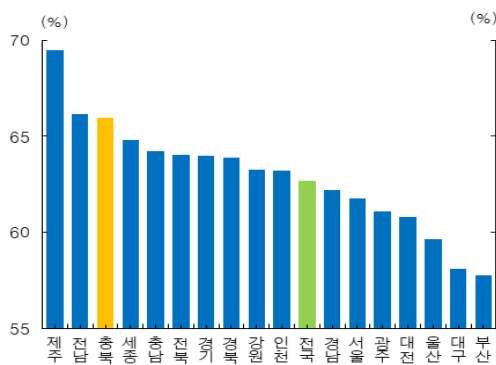
1. **충북지역 고용사정은 양적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고용률은 66.0%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이러한 상황은 2013년 중 충북지역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넘어선 후 지속되고 있는데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세¹⁾와 함께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2. 그러나 고용의 양적 지표에 의존한 고용 사정 판단은 한계가 존재한다. 근로 시간 단축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의지 증대 등이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질적 측면은 오히려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충북지역 고용사정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적 지표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고용의 안정성, 질적 측면, 매칭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4. 본 고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최근 충북지역 고용 동향을 살펴보고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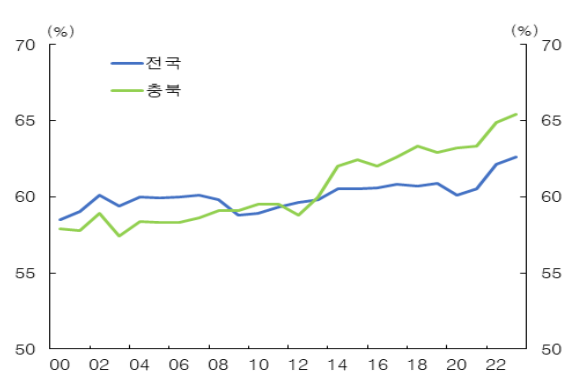
2013년 이후 전국을 상회하는 수준 지속

[그림 1] 시·도별 고용률(2024년 1~8월)

[그림 2] 충북지역 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1) 2015~2022년 중 충북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의 연평균 성장률은 +4.5%로 17개 시·도 중 세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GRDP 대비)은 2015년 44.3%에서 2022년 48.6%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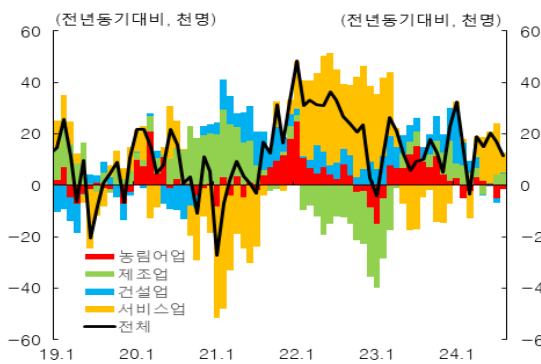
Ⅱ. 최근 충북지역 고용 동향의 특징

양호한 고용사정 지속

5. 충북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양호한 고용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취업자 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6만명 늘어나며 2023년(+1.3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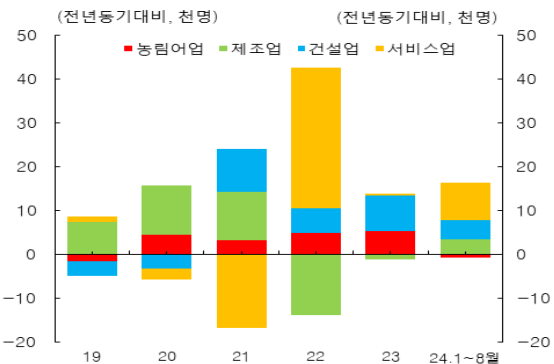
[그림 3] 충북지역 취업자 수 증감



자료 : 통계청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

[그림 4] 충북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연간¹⁾)



주 : 1) 2024년은 1~8월 중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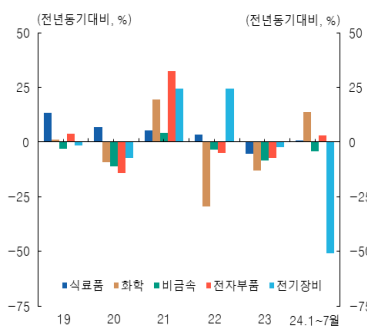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되었다.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4천명 늘어나며 2023년(-1.2천명)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2%, 13.8% 늘어나며 전년(-7.4%, -13.1%)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8.4천명 늘어나며 2023년(+0.5천명)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계절조정)이 2023년 중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4년 1/4분기 중 전기대비 1.0% 증가 전환 후 2/4분기 중에도 0.6% 늘어나며 증가세가 이어진 것에 기인한다.
7. 건설업은 제도적 요인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였다. 다만 5월 이후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 영향이 나타나면서 증가폭을 제한하였다.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²⁾된 데다 안전 규제 강화³⁾ 등의 영향으로 건설 인력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4.5천명 증가하였다. 다만 5월 이후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누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5~8월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6천명 감소하였다. 충북지역 건축착공면적은 2022년 이후 감소세(22년 -11.0% → 23년 -36.5%)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1~7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하였다.

전자부품, 화학제품 생산이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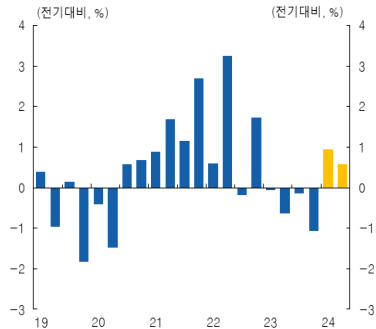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로 전환 건축착공면적은 감소세 지속

[그림 5] 충북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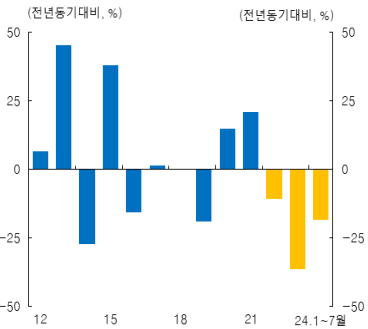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6] 충북 서비스업 생산¹⁾



주 : 1) 계절조정계열(자체 시산)
자료 : 통계청

[그림 7] 충북지역 착공면적



자료 : 국토교통부

8.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충북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0~2023년 중 귀농 인구 유입⁴⁾ 및 지자체의 도시농부 사업 추진(2023년 시행)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⁶⁾가 이어졌으나 2024년 1~8월 중에는 기상 여건 악화⁷⁾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며 전년동기대비 0.6천명 감소하였다.

2) 건설업은 기상 여건 등의 이유로 집중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건설 기간이 늘어난다.
3)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4) 2020~2023년 중 충북지역 귀농 인구는 3.7천명(20년 0.9천명 → 21년 1.1천명 → 22년 1.0천명 → 23년 0.7천명)으로 전국 귀농 인구의 7.4%를 차지한다.
5) 2023년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동 사업은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충북지역 도시농부 사업의 효과」를 참조하길 바란다.
6) 충북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0년 중 4.4천명, 2021년 중 3.2천명, 2022년 중 4.9천명, 2023년 중 5.2천명 증가하였다.
7) 지난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충북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26시간으로 지난 10년 평균(174시간)보다 48시간 적었다. 또한 2024년 7월 평균기온은 25.9도로 평년(24.4도)보다 1.5도 높았고 강수량은 498.8mm로 평년(302mm)보다 약 200mm 많았다.

참고 1 충북지역 도시농부 사업의 효과

충북지역 도시농부 사업은 전국 최초의 도농 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유도를 목적으로 2023년 시행되었다.

【근로 형태】 2일간의 농업 분야 교육 이수 후 단기(하루 4시간, 일당 6만원) 일자리 형태로 근무

【지원 내용】 ▶ 교육 기간 중 1일 2만원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 근무 중 인건비의 40% 지원

▶ 영농작업반장 선정 후 구성원이 3~5명이면 5천원, 6명 이상이면 1만원 추가 지급 등

사업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참여 농가가 2023년 1,717호에서 2024년(8.22일 기준) 6,777호로 늘어나면서 근로자 수도 3,919명에서 6,281명으로 증가하였다.

도시농부 사업 시행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3년 중 0.3~1.3천명, 2024년 1~8월 중 0.8~2.8천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 중 충북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5.2천명)의 6.3~24.2%를 차지한다. 또한 2024년 1~8월 중에는 동 사업 시행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0.6천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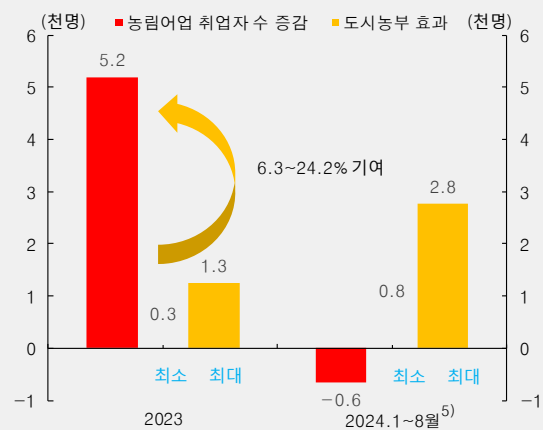
【유의 사항】 추정치 상한은 도시농부 근로자가 주 1회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추정

도시농부 사업 시행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3년 중 0.3~1.3천명, 2024년 1~8월 중 0.8~2.8천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1.1] 도시농부 추진 현황 및 효과 추정

	2023년	2024년 ¹⁾
도시농부 투입인원(a)	3,919명	6,281명
도시농부 총 연인원(b)	65,532명	95,757명
1인당 평균 근무일수(c=b/a)	16.7일	15.2일
1인당 평균 근무월수(d=c*12/52 ²⁾)	1.0 ³⁾ ~ 3.9개월	1.0 ³⁾ ~ 3.5개월
월평균 취업자수(f=a*d/e ⁴⁾)	0.3~ 1.3천명	0.8~ 2.8천명

[그림 1.1] 충북지역 도시농부 효과



주 : 1) 8.22일 기준 2) 1주=0.23(12월/52주)개월 3) 1개월 내에 평균 근무일수(c)를 모두 근무한 경우

4) e는 2023년은 12개월, 2024년은 8개월 5) 도시농부 효과는 8.2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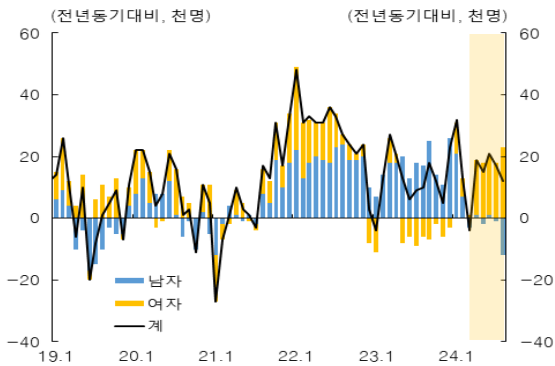
자료 : 충청북도, 통계청, 자체시산

여성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9. **금년 들어 충북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었다.**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4.1천명 늘어나 남성(+1.5천명)을 크게 상회하였다⁸⁾. 여성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서비스 및 판매직⁹⁾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8월 중 충북지역 서비스·판매 직종 취업자 수는 8.6천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수 증가(+15.6천명)의 55.2%를 차지한다¹⁰⁾.

여성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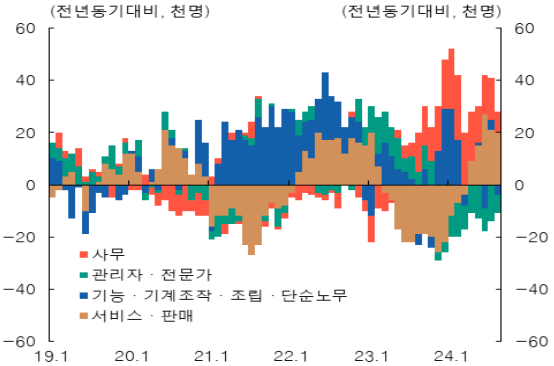
[그림 8] 충북지역 성별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서비스·판매 직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그림 9] 충북지역 직업별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10.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되었다.**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3.2천명 증가하였다¹¹⁾. 이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향상된 신체 능력과 노동을 지속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령층의 근무 유인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24년 5월)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 중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전년대비 0.9%p 상승한 가운데 근로 희망 사유 중 '생활비에 보탬'과 '일하는 즐거움'의 비율이 각각 55.0%, 35.8%로 높게 나타났다¹²⁾.

8)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1~8월 중 57.8%(월평균)로 2023년의 56.2%에서 1.6%p 상승하였다.

9) 2024년 1~8월 중 전국 기준 서비스·판매 직종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61.2%로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4.2%)을 크게 상회한다.

10) 한편, 2024.1~8월 중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서비스·판매 직종 취업자 수는 2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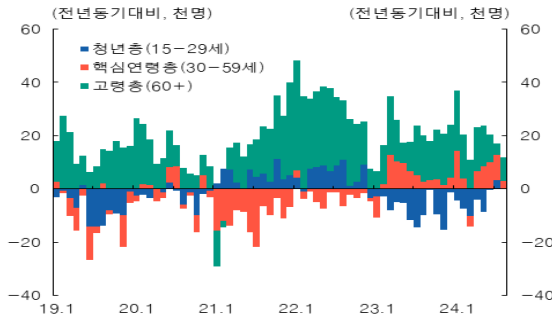
11)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1/4분기와 2/4분기 중 52.4%와 56.6%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p, 1.0%p 상승하였다.

12) 이외에 '무료해서'(4.2%), '사회가 필요로 함'(2.7%), '건강유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고령층의 근무 유인이 증가

[그림 10] 충북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표 1] 고령층의 근로 희망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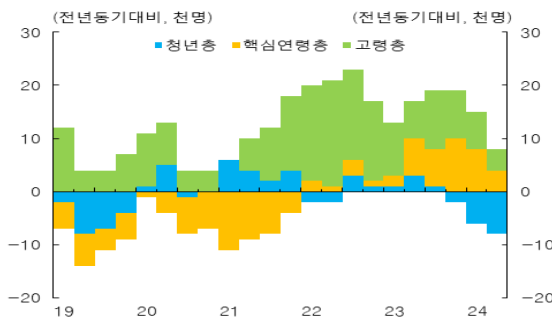
사유	(비중, %)	
	2023년	2024년
비희망자	31.5	30.6
희망자	68.5	69.4
일하는 즐거움	35.6	35.8
생활비에 보탬	55.8	55.0
사회가 필요로 함	2.3	2.7
건강유지	2.0	2.2
무료해서	4.3	4.2

자료 : 통계청

11. 여성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남성 고령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상반기 중 충북지역 여성과 남성의 고령층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9.5천명, 5.5천명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2023년(+6.5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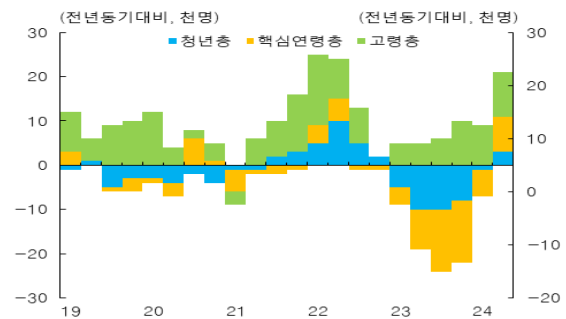
상반기 중 여성 고령층(+9.5천명)의 취업자 수가 남성(+5.5천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

[그림 11] 충북지역 남성의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그림 12] 충북지역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12. 한편 핵심연령층(30~59세)과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연령층 취업자수의 경우 2024년 1~8월 중 6.4천명 증가하며 2023년(4.5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의 경우에는 4.0천명 감소하였으나 2023년(-7.3천명)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¹⁴⁾.

13) 반면 남성 고령층 취업자 수는 2023년(+9.3천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14)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2024년 상반기 중 50.7%(분기 평균)로 2023년의 50.6%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요인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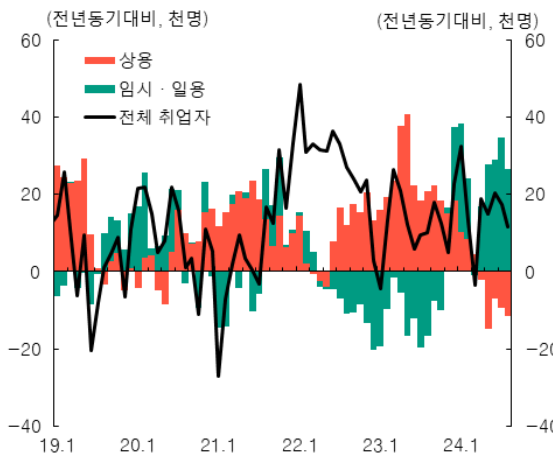
고용 불안정성 확대

13. **금년 들어 임시·일용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1~8월 중 충북 지역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2.7천명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22.3천명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충북의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율은 1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시·일용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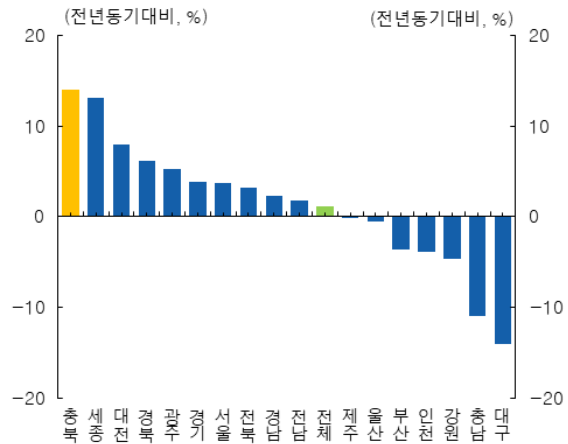
충북지역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

[그림 13] 충북지역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그림 14] 시·도별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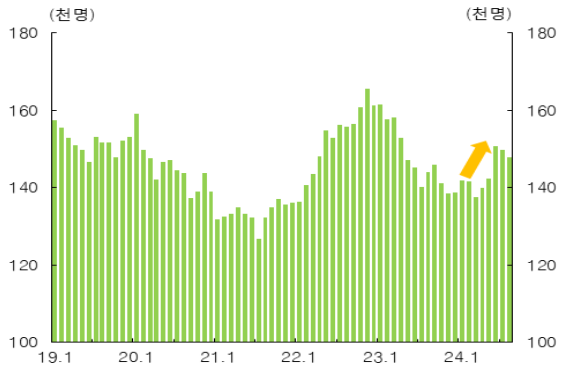
주 : 1) 24.1~8월 중
자료 : 통계청

14. **이는 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단기 구인 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지역 내 내수 경기 부진이 소폭 완화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지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이 재개¹⁵⁾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였다. 도 소매·음식점업 취업자 수(계절조정)가 2024년 3월(13.8만명)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8월 중에는 14.8만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도시농부 및 도시근로자 사업 등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추진도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요인은 2024년 1~8월 중 임시·일용근로자 증감(+22.3천명)의 7.4%(+1.6천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⁶⁾.

15) 지역 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시 중단(23.4월) 하였던 공장 건설을 4월말부터 재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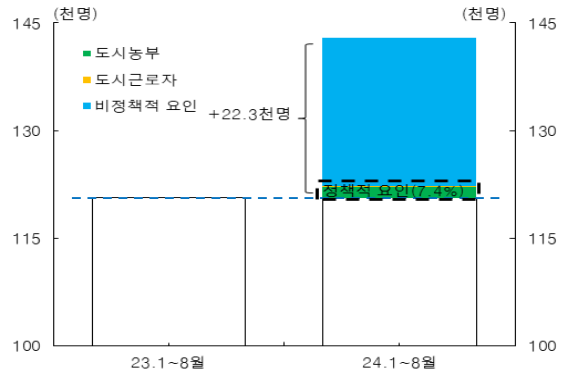
16) 도시농부(추정치 상한 기준)와 도시근로자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각각 1.5천명, 0.1천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근로자의 경우 참여인원과 연인원을 기반으로 <참고1> 「충북지역 도시농부 사업의 효과」의 방식을 이용하여 시산하였다.

[그림 15] 충북지역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¹⁾



주: 1) 계절조정계열(자체시산)
자료: 통계청

[그림 16] 충북지역 임시·일용근로자 증감 요인 분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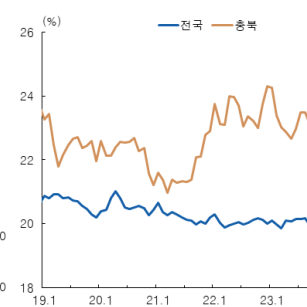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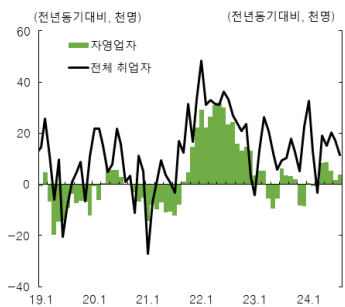
주: 1) 24.1~8월 기준
2) 도시농부는 8월 22일 기준
자료: 통계청

15. 자영업자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전국(-54천명)과 달리 4천명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과 전국의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수 대비 각각 23.3%, 19.7%) 격차는 3.5%p로 전년동기(3.2%p)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경제활동 참가자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임금 근로 대신 불안정성이 높은 자영업을 선택한 데 일부 기인한다¹⁷⁾. 2024년 1~8월 중 충북지역 고숙련¹⁸⁾ 취업자 그룹의 비중은 14.8%로 전년동기(16.2%)에 비해 1.4%p 낮아졌다.

[그림 17] 충북지역 자영업자

[그림 18] 자영업자 비중¹⁾

[그림 19] 고숙련 노동자 비중²⁾



주: 1) 전체 취업자 대비 2) 전체 취업자 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
자료: 통계청

17) 또한 자영업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낮은 임금 보상에도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충북지역 고용의 임금 보상과 자영업자 비중」을 참조하길 바란다.

1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직업 분류 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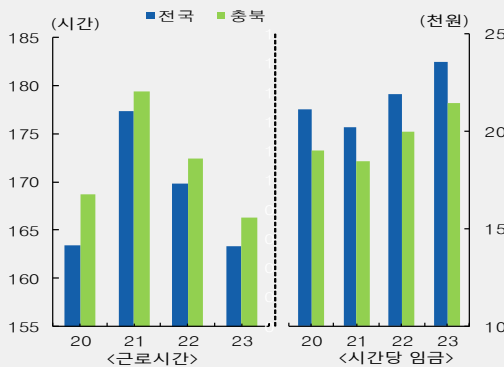
참고 2 충청지역 고용의 임금 보상과 자영업자 비중

충북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임금 보상 측면에서 부진하다. 2023년 중 충청지역 월평균 근로시간(상용근로자, 5인 이상)은 166.3시간으로 전국(163.3시간)보다 많았으나 월 급여는 356.2만원으로 전국(384.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시간당 임금도 21.4천원으로 전국(23.5천원)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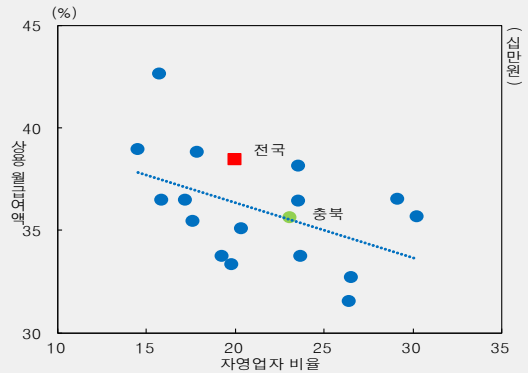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에 대한 낮은 임금 보상은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17개 시·도의 2023년 기준 상용근로자 월 급여액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시간당 임금은 낮음 월급여액과 자영업자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

[그림 2.1] 근로시간¹⁾ 및 시간당 임금²⁾



[그림 2.2] 상용근로자 급여¹⁾와 자영업자 비중³⁾의 상관관계⁴⁾



주 : 1) 상용근로자(5인 이상) 월 급여액 2) 월 급여액/ 총 근로시간 3)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 2023년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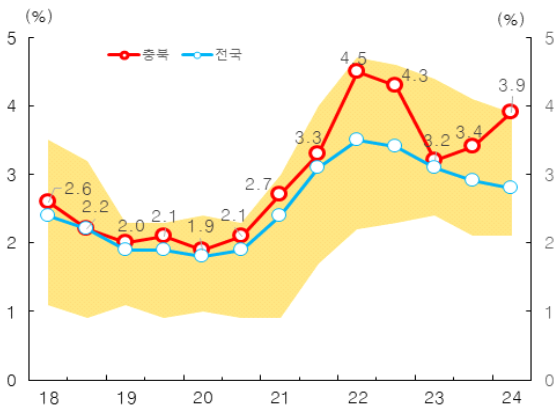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발생

16. 충북지역은 노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중 충북지역 인력 부족률¹⁹⁾은 3.9%로 2023년 상반기(3.2%)보다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사업체의 취업자 수 정원(현원+부족인원)이 노동수요 증가로 2.3% 늘어났음(603.7천명 → 617.5천명)에도 불구하고 부족인원이 22.5% 증가(19.5천명 → 23.9천명)한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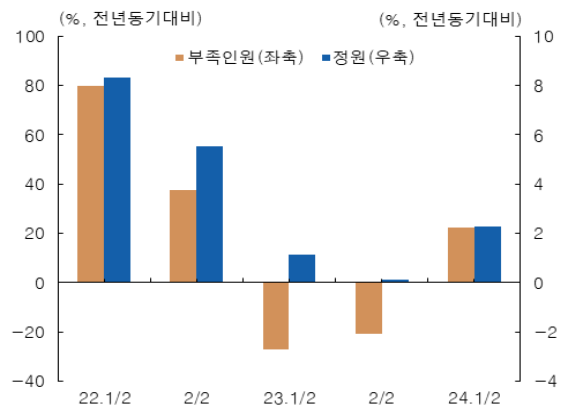
인력 부족률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정원보다 부족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

[그림 20] 인력 부족률¹⁾²⁾³⁾



[그림 21] 충북지역 사업체 정원 및 부족인원



주 : 1) 부족인원 / (현재인원+부족인원)

2) 2020년 이전은 종사자 5인 이상, 2021년 이후는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3) 음영은 17개 시도 범위

자료 : 고용노동부

17. 다만 이는 음식 서비스 및 기계 관련 직종의 구인난 심화²⁰⁾에 주로 기인한다. 2024년 상반기 중 충북지역 음식 서비스 및 기계 설치·정비·생산직의 인력 부족률은 각각 9.6%와 8.7%로 2023년 상반기(3.9% 3.8%)보다 5.7%p, 4.9%p 상승하였다. 반면 전국의 음식 서비스 및 기계 관련 직종의 인력 부족률은 각각 4.1%, 3.7%로 2023년 상반기(4.6%, 4.1%)보다 0.5%p, 0.4%p 하락하였다.

19) 인력 부족률은 정원(현재인원+부족인원) 대비 부족인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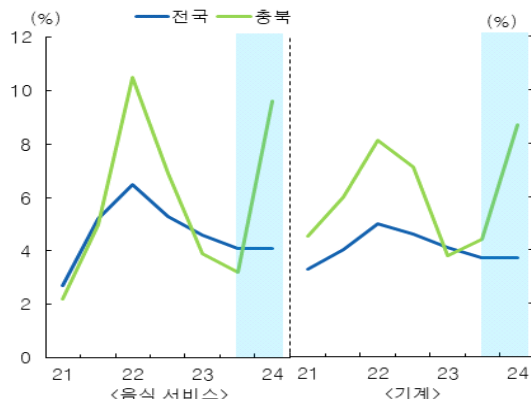
20) 이는 2024년 상반기 중 지역 내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서비스 업황이 개선된 데다 지역 내 주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업종의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18. 2022년 중 인력부족률이 크게 증가했던 제조업 관련 직종(기계 제외)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구인난이 점차 완화되었다. 제조 단순직과 금속 관련 직종의 인력 부족률이 2022년 상반기 중 각각 11.2%, 9.8%에서 2024년 상반기 중 6.8%, 3.6%로 하락하였다. 또한 식품 관련 직종도 2022년 하반기 중 7.3%에서 2024년 상반기 중 3.6%로 낮아졌다. 2023년 시행된 정부의 비전문 외국 인력 쿼터 확대²¹⁾ 등이 구인난 해소에 영향을 미쳤다²²⁾. 특히 충북의 주요 산업인 식료품 제조업에 대한 구인난 대책²³⁾은 지역 내 식품 관련 직종 구인난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음식 서비스 및 기계 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구인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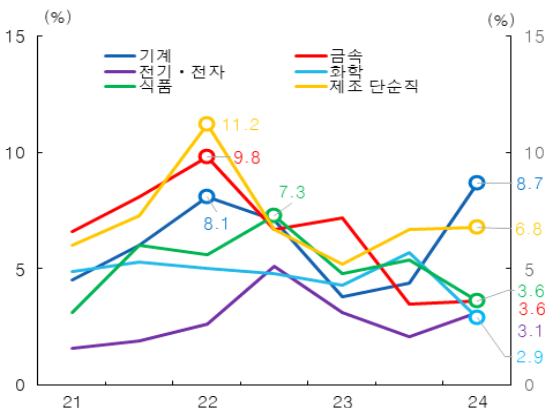
다만 기계 관련 직종을 제외한 제조업 구인난은 완화

[그림 22] 직종별 인력 부족률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23] 제조업 세부 직종별 인력 부족률



자료: 고용노동부

21) 정부는 2023년 중 외국 인력 쿼터를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1만명 추가한 데다 2024년 중에는 쿼터를 16.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2) 이로 인해 충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2년 1/4분기 중 11.3천명에서 2024년 2/4분기 중 17.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충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23) 충북지역 식료품 제조업체의 47.5%가 음성·진천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개별입지에 분산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통근 차량,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인력 유입을 장려하였으며 여성인력 유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지원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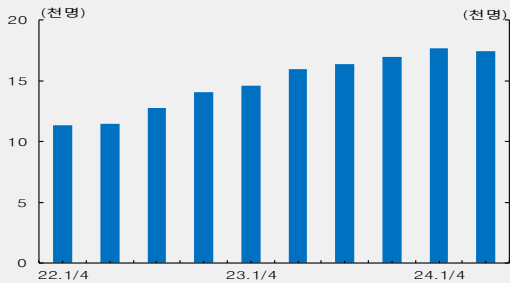
참고 3 충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국내 외국인 근로자(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기준) 수는 구인난과 고령화에 따른 내국인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충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도 2022년 1/4분기 중 11.3천명에서 2024년 2/4분기 중 17.5천명으로 54.1% 증가하였다. 2024년 2/4분기 중 충북의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8%로 전국(0.9%)을 상회하였으며 충남(1.9%)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제조업에 종사한다. 충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87.6%로 전국(78.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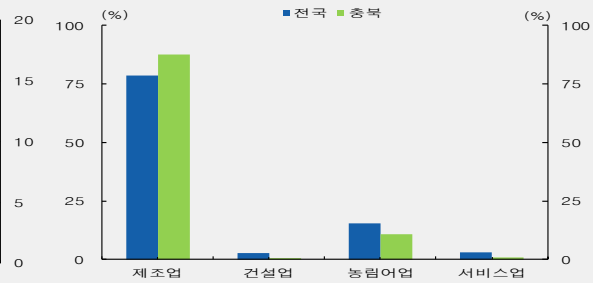
[그림 3.1] 충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¹⁾



주: 1) E-9, H-2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

[그림 3.2]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향후 비전문 취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중 비전문 취업 쿼터가 기존 12.0만명에서 16.5만명(전국)으로 대폭 확대된 가운데 2024년 8월 이후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 사업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대상 업종을 기존의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도 전국으로 완화하였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표 3.1] 음식점업 시범사업 요건 비교

	기존	개선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전국
업종	한식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업력	5년(5인 이상), 7년(5인 미만) 이상	5년 이상
직종		주방보조 유지
사전교육	없음	고용 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자료: 고용노동부 「제 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언론보도

Ⅲ.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 종합 평가

19. 최근 충북지역 고용사정은 ①취업자 수의 견고한 증가세가 지속되며 양적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②서비스직 중심의 고령층 여성, 단기 고용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며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③일부 업종에서는 노동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수급의 미스매칭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시사점

[지역내 노동수요 확대 지속]

20. 양호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도록 충북경제의 지속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역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같이 다양한 산업의 노동수요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성장 전략산업을 육성·강화하여야 한다.
21.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준공(2028년 예정) 전에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필요 전문인력 충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사광가속기와 주력 산업의 성공적인 연계를 통한 첨단 제조업의 육성은 장기적으로도 지역 내 양호한 고용 흐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2. 충북지역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3. **도시농부 사업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충청북도의 도시농부 사업이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농촌 인력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 안정성 제고]

24. **서비스산업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면 전문인력으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은퇴 후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임시·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된 우수 인력의 상용근로자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25. **예를 들어 청주 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 물류 서비스업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천 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 물류 서비스를 청주 국제공항으로 분산하여 중부권 항공 물류 기지로써 활용한다면 물류 서비스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 창출은 물론 지역 내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력난 완화]

26. **또한 구인·구직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간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전산·행정적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매칭 효율성이 증가하며 식료품 가공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구인난이 점차 완화되었다. 다만 향후 구인난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전문 취업(E-9)의 경우 취업 인원, 체류자격, 기간 및 취업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고용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외국 인력 활용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길은선(2021),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16호

김광민(2020), “충북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김광민, 심연정(2021), “충북의 양호한 고용상황 배경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
북본부

송상윤, 김동준, 배한이(2023),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BOK이슈노트
제2023-35호

마상진(2022),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과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88호

마상진, 정도채, 민경찬(2019),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백승연, 최재혁(2023), 대전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본부

정봉수(2021),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HR라운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2024), 국민권익위원회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2023), 고용노동부